

## 신제품개발역량이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 인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태우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부교수

이기준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사과정

김정근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사과정

황지연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사과정

## The Effect of 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ie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Venture Firm: Moderation Role of Founder's Human Capitals

Taewoo Roh<sup>a</sup>, Kijun Lee<sup>b</sup>, Junggeun Kim<sup>c</sup>, Jiyeon Hwang<sup>d</sup>

<sup>a</sup>Global Business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Global Business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c</sup>Global Business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d</sup>Global Business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6 November 2022, Revised 21 December 2022, Accepted 22 December 2022

### Abstract

Amid the growing importance and growth potential of venture firms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the effect of 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ies (NPDC)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venture firms and the moderating impact of founders' human capital. NPDC is a core competency that can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and is required when entering multinational markets. Therefore, we subdivided founders' human capital into professional experience, startup experience, education level, and marketing capacity and examined each moderating effect on a venture firm's internationaliza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1,362 Korean venture firms using the Tobit model, this study found that venture firms with excellent NPDC tend to achieve a higher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In addition, among the founder's human capitals, professional experience, education level, and marketing competency moder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PDC and internationalization. In contrast, the founder's startup experience was in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explain the factors that trigger the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of venture firms from the perspective of dynamic capabilities and suggest that the founder's human capital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internationalization.

**Keywords:** 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ies, venture firm, Founder's human capital, Professional experience, Start-up experience, Education level, Marketing capabilities

**JEL Classifications:** F10, F14, M31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and Innovation Support Project.

<sup>a</sup> First Author, E-mail: troh@sch.ac.kr

<sup>b</sup> Co-Author, E-mail: kijunlee01@gmail.com

<sup>c</sup> Co-Author, E-mail: junggeun0524@gmail.com

<sup>d</sup> Co-Author, E-mail: kareusia1@gmail.com

## I. 서론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계획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OECD의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중소기업이라고 인식해 왔고 벤처기업의 수를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벤처기업의 주목도가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산업발전에 견인차가 되어주고, 국가 경제에 주는 고용 창출 효과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 역할을 하여 그 주목도가 상승했고, 벤처기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아가며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Chang, Sug-In, 2020; Rhee, Yang-Pok, 2021; Lee, Kyoung-Joo and Choi Jong-In, 2012). 예를 들어, 국내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 21,000여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수천 개의 기업들이 새로이 등록되고 있다(Innobiz.Net, 2022).

그러나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며(Rhee, Yang-Pok, 2021), 본질적으로 위험도와 정보 비대칭성이 높아 외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Kim, Kun-Woo and Seo, Byung-Chul, 2010). 특히나 국제화에는 막대한 자원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화를 추진하는 벤처기업은 소규모 기업의 역량 및 자원이 부족한 어려움과 낯선 해외시장에서의 외국인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emirbag, McGuinness and Altay, 2010; Jang, Myoung-Gyun and Lee, Dong-Hyun, 2018; Kim, Eun-Hye and Kim, Jang-Hoon, 2020). 이런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외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화에 필요한 역량을 보충하고자 시도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 및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Kim, Eun-Hye and Kim, Jang-Hoon, 2020; Laursen and Salter, 2006).

이러한 “소규모 불리(liability of smallness)”에도 불구하고, 몇몇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은 세계 여러 시장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테슬라(Tesla)는 2003년 창업한 이후 2010년 창업 7년 만에 22억 2,000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아 나스닥(NASDAQ)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시가총액 5,690억 달러(한화 약 770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 되었다(Forbes, 2022).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그랩(Grab)은 10년도 되지 않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치있는 민간기업이 되었으며, 2021년 기준 8개국 465개 도시에서 월간 2,5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여 현재는 시가총액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CNN, 2021). 이와 같은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기존문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Roh, Tae-Woo, Park, Byung-Il and Xiao (2022)는 신생국제벤처기업이 혁신성을 지향하면서 내부투자자와 외부투자자 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적 충돌을 해결할수록 그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든 국가에서 벤처기업의 성장과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벤처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벤처캐피탈 또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연구들이며(Chung, Doo-Hee, 2019; Kim, Kun-Woo and Seo, Byung-Chul, 2010; Park, Ji-Young and Shin, Hyun-Han, 2020), 벤처기업의 국제화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업가정신(Yoon, Jung-Hyun and Seo, Min-Kyo, 2015), 자원과 역량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Jang, Myoung-Gyun and Lee, Dong-Hyun, 2018; Jeong, So-Won and Won, Chong-Hyun, 2015; Kim, Eun-Hye and Kim, Jang-Hoon, 2020). 지식기반관점에서 지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존재하며(Cho, Yeon-Sung and Lee, Tae-Hee, 2014; Kang, Shin-Hyung, Kim, Sun-Young and Park, Sang-Moon, 2020), 창업자의 특성이 벤처기업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우도 존재한다(Chun, Dong-Phil, 2018). 하지만, 벤처기업 맥락에서 신제품개발역량(new product development, NPD)과 국제화, 창업자의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신제품개발역량은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 상에서 투입이 되는 기자재, 인력 지원, 재정적 지원, 특허 등이 종합적으로 상품화에 이르는 최종기술력(front-end technology)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Oliveira and Rozenfeld, 2010).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제품개발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빠른 의사결정과 기술우주의 제품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신제품개발역량을 갖는 것이 국제시장에서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Kiss and Barr, 2017). 예컨대, 대기업은 시제품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의 협의와 기획단계에서 수차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잠재적 수요로 예상되는 니치마켓이 타게팅이 되는 순간부터 발빠르게 상품기획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듯 벤처기업은 신제품개발역량을 통해 기술적 대응력 우위(technological adaptiveness)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제품의 성과를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Yu et al., 2020).

이러한 논의에 더해,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높은 수준의 국제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 어떤 요인이 그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벤처기업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특성들 중에서 창업자의 각인 효과(imprinting)는 상당하다. 창업자의 이전 경험은 혁신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권위적인 창업자일수록 R&D 협력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Wyrwich et al., 2022). 따라서, 창업자가 가지는 인적 특성이 벤처기업이 전략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신제품개

발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효과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기존문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신제품개발역량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벤처기업은 신제품개발역량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자 인적자본이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태적 역량 이론의 배경 위에서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과 국제화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창업자의 인적자본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기존문헌 검토 및 가설제시

### 1. 기존문헌 검토

#### 1)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

자원기반관점(RBV, resource-based view)에 따르면 기업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생존한다. 이때 다른 기업의 자원과 차별적으로 모방하기 힘들고, 희소성 있고, 가치있고, 대체가 어려운 자원이나 역량(resource and capability)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Barney, 1991). 지식은 기업의 전략적 자원 중 하나이며, 지식의 소유와 접근은 자원기반관점에서 설명하는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식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하는 지식기반관점에서는 지식이 양도성(transferability), 전유성(appropriability), 총합능력(capacity for aggregation)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업이 효율적으로 지식을 관리할수록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으로 간주한다(Grant, 1996). 지식기반관점은 지식을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Fernandes et al., 2022).

그러나 비즈니스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축적한 지식이나 자원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동태적 역량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이 내외부의 역량을 통합하고 구축,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하며 (Teece, Pisano and Shuen, 1997), 지식을 감지하고(sensing), 포착하고(seizing), 재구성하는(reconfiguration) 능력이다(O'Reilly and Tushman, 2008). 환경적 역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동태적 역량을 활용하여 변화에 대응해야 지속적인 경쟁우위나 성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Cooper and Kleinschmidt, 2007).

신제품은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량한 것을 시장에 적용하는 활동으로(Lester, 1998), 신제품개발은 위험을 감수하며 고객과 기업의 관점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혁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Woo, Hyung-Rok and Kwon, Jung-Eon, 2013). 기업에게 기술혁신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Tushman and Anderson, 2018),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원천을 찾는 활동이 중요하다(Veugelers and Cassiman, 1999). 이러한 혁신의 중요성은 벤처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벤처기업이란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이라는 뜻의 벤처(venture)와 기업의 합성어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위험성 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생기업을 말한다(Park, Ji-Young and Shin, Hyun-Han, 2020).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주목도와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 벤처기업 중에서도 점진적 국제화를 추진하던 과거와 달리 창업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본 글로벌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Rhee, Yang-Pok, 2021). 그러나 벤처기업들은 현실적

으로 혁신이나 기술적 우위가 주요 성공요인임에도 불구하고(Park, Ji-Young and Shin, Hyun-Han, 2020), 국제화를 위한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나 혁신적 기술역량과 같은 요소에 의존하여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Rhee, Yang-Pok, 2021).

## 2) 창업자의 인적자본

신생벤처의 국제화 문헌에서도 전략적 의사결정자로서 창업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기업을 설립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자원을 결합해낸다(Phillips McDougall, Shane and Oviatt, 1994). 경영자나 창업자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에 있어 기존 경험에 기반한다(Rhee, Yang-Pok, 2021). 이는 경험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며,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주변 정보를 살피는 경각심이 이전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Shepherd and DeTienne, 2005). 또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창업자는 제품, 기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고객, 공급사, 이해관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Cooper, Gimeno-Gascon and Woo, 1994). 기업가들이 대부분 과거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과거 상대한 고객과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Aldrich, 1990; Cooper and Dunkelberg, 1986; Phillips McDougall, Shane and Oviatt, 1994).

창업자의 경험은 경력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며 우수한 경력을 바탕으로 둔 창업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Shin, Seung-Yong and Kwon, Gyu-Hyun, 2021). 창업자의 교육수준 역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Barringer, Jones, Neubaum, 2005). 관리, 성장, 성공 등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창업자는 그렇지 않은 창업자보다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확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Cohen and Levinthal, 1989). 창업자의 네트워크 또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창업

자의 인적 네트워크 내의 특정 사람들은 벤처 사업을 위한 기회를 식별하고, 사업 조언을 제공하며, 협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을 빌려 평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Phillips McDougall, Shane and Oviatt, 1994). Kato, Okamuro and Honjo (2015)는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R&D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창업자의 인적자본은 벤처기업 관련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Kang, Shin-Hyung, Kim, Sun-Young and Park, Sang-Moon (2020)은 벤처기업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매개로 국제화를 추진할 때 해당 산업에 대한 창업자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였다. Chung, Doo-Hee (2019)는 창업자의 학력이 자금조달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비중과 자금조달 사이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한다고 결론지었다. 창업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비교하여 초기 및 중장기 경영성능이 저조하며, 관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공동창업을 한 경우 초기 경영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Chun, Dong-Phil, 2018).

주로 선행연구들은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벤처기업의 국제화 비용을 줄여 해외시장에서의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과 벤처기업이 지닌 평판, 기업의 자본조달은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연구했다(Park and LiPuma, 2020; Woo, Hee-Jin, 2020). 그러나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제품개발연구와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중요한데, 선행연구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벤처기업은 국제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독특하고 우월적인 기술혁신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Veugelers and Cassiman, 1999). 이에 더하여 창업자의 이전 경험, 교육수준 그리고 네트워크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들은 신제품개발역량과, 창업자의 인적자본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는 신제품개발역량으로, 조절변수는 창업자의 인적자본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즉, 벤처기업이 국제화를 하기 위해선 신제품개발역량과 창업자 인적자본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한다고 할 수 있다.

## 2. 가설제시

### 1)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과 국제화

해외시장에 대한 사회 및 정치적 장벽의 완화되고, 통신이나 교통과 같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벤처기업활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수익 창출을 위한 그들의 추구에 부합하는 전략이므로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Shin, Chung-Ho, Lee, Young-Woo, Cho, Hye-Jin, 2019). 벤처기업은 각각 다른 기업 환경에서 성공적인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상호 경쟁구조를 형성시킨다(Kim, Soo-Jin and Kim, Hyung-Jun, 2018; Yoon, Hyun-Joong, 2018). 벤처기업이 국제화를 빠르게 할 때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Choi, Jin-Ah, 2012), 신제품개발에서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을 협력하거나 생산공정 과정을 개선하여 내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Kim, Sung-Hong, 2013). 신제품 개발은 제품개발 성과와 신제품의 기술적 성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제품개발 성과는 기업의 기술 획득 활동이 경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Lee, Rok, 2020). 동태적 역량 관점에서 Kim, Do-Eui, Jung, Jae-Hwi and Min, Yong-Ki (2020)는 기업이 지니고 있는 자원우위와 경쟁우위를 이용하고 유지해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동기가 발생할 것이고 그 동기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Lilien, Gary L. and Yoon, Eun-sang (1989)는 신제품개발 성공 요인으로는 제품의 우월성 및

독특성, 특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Hwang, Doo-Sik and Song, Woo-Yong (2021)은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개발역량이 기업에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해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제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보충하여 신제품개발 성과는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개발역량은 기업이 국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e.g., 소비자 니즈 변화 및 목적시장 기술적 요구)을 감소시켜주고, 차별화된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역량을 증진하게 되면, 동태적 역량관점에서도 감지(sensing)와 포착(seizing)이 발달되므로 더 많은 시장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Brieger, Steven A. et al. (2022)는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성인 인구 조사(Adult Population Survey, AP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의 국제화수준은 각기 다르지만, 벤처기업의 기술, 산업 성숙도와 기업이 해외로 확장하려는 지향성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H1: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은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창업자 인적자본: 전문적 경험

신제품개발은 고객 욕구의 다양화와 시장의 글로벌 확장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Salomo, Weise and Gemünden, 2007). 이에 따라, 신제품개발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므로 기술혁신에 필요한 R&D 활동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Tushman, Michael L and Anderson, Philip, 2018). 특히, 벤처기업은 가용 및 여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신제품개발을 위해 개발 및 관리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Woo, Hyung-Rok

and Kwon, Jung-Eon, 2013). 창업자의 전문적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이 기업의 자원과 경험의 부족을 별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R&D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ato, Okamuro, and Honjo, 2015). Marvel, Matthew R, Wolfe, Marcus T and Kuratko, Donald F (2020)는 창업자를 포함해 스타트업 어드바이저 그룹에게 얻은 656개 설문응답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전문적 경험이 새로운 상품의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Okamuro, Kato, and Honjo (2011)는 499개의 일본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자가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험에서 얻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조직과 R&D 협력을 통한 R&D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창업자의 전문적 경험은 신제품개발역량에 핵심적인 부분인 R&D의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여 신제품개발역량이 국제화에 주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H2a: 창업자의 전문적 경험은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3) 창업자 인적자본: 창업 경험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의지에 따라 벤처기업이 형성되고, 창업자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주요한 가치 창출수단이 된다(Shin, Chung-Ho, Lee, Young-Woo, Cho, Hye-Jin, 2019). 벤처기업이 초기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의 불리함과 외국인 비용을 모두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중적인 불리함을 이겨내기 위해 차별화되는 기업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Yeo, Ji-Eun, Yu, Jeong-I, Kang, Shin-Hyung, 2021). 이런 점에서 벤처기업은 '창업자라는 각인요소(imprinting factor)가 상당히 중요하며(Shin, Chung-Ho, Lee, Young-Woo, Cho, Hye-Jin, 2019), 창업자가 과거에 유사한 창업경험이 있을수록 국제

화 성과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창업 경험을 가진 기업가들은 과거에 사업 전반적 경험(e.g., 법인설립, 투자유치, 인력구성, 기술개발 등)을 한 적이 없는 기업가보다 실패 확률이 낮다(Cho, Ye-Hee and Choi, Soon-Gwon, 2017). 창업자의 존재는 벤처창업 기업의 기회 포착, 설립과정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창업자가 창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제품개발에 이전 경험들을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초기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Park, Sang-Moon and Lee, Mee-Soon, 2019). Kang, Jung-Eun and Rhee, Jay-Hyuk (2010)는 14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에서 해외영업 또는 수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과 이전에 무역회사를 경영했던 경험을 측정하여 창업자의 해외경험과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an, Jung-Wha, Bae, Tae-Jun and Lee, Byung-Hee (2008)는 24개 국제 신생 벤처기업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창업자의 해외 사업 경험이 해당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60개의 국제 신생 벤처기업과 146개의 점진적 국제화 기업을 비교하였을 때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이전 창업 경험은 신제품개발역량에 있어 중요한 몫을 하고, 이는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H2b: 창업 경험은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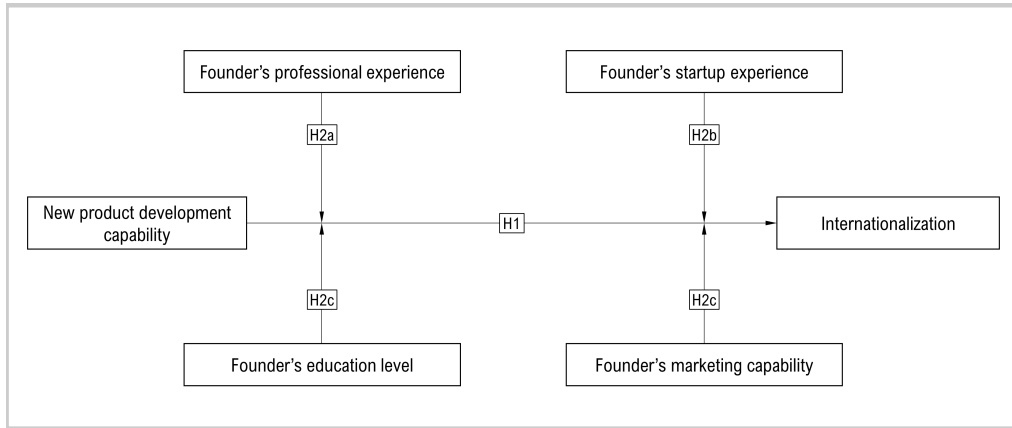
#### 4) 창업자 인적자본: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원활한 벤처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경영적 결정 능력, 그리고 자신감 등에 영향을 준다(Chrisman, Bauerschmidt and Hofer, 1998; Cooper, Gimeno-Gascon and Woo, 1994). 창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자는 높은 학습 역량

을 가지고, 이는 창업자의 기회의 포착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Avermaete et al., 2004; Marvel and Lumpkin, 2007). 따라서, 창업자의 높은 교육수준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수요를 포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수요에 알맞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게는 초기 단계에 보여지는 성과, 자본,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효과적인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식이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Dimov and Shepherd, 2005). 창업자의 지식은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Franco, Cappa and Pinelli, 2021). Cao and Im (2018)은 첨단 기술 벤처기업들을 인터뷰하여 얻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400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교육수준이 벤처기업의 R&D 탐색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R&D 활동은 새로운 제품 개발의 주요 원인으로써 교육수준이 벤처기업의 R&D 탐색을 장려하기 때문에 신제품개발역량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창업자의 교육수준은 R&D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창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조직의 R&D 관계인과의 네트워크가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창업자의 교육수준, 즉 창업자의 역량은 외부 조직의 R&D 협력 의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Okamuro, Kato and Honjo, 2011). 추가로, 벤처기업은 자원이 대개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신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Patzelt, 2010). 그리고 창업자의 교육수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잠재성을 신호하는 역할을 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Baum and Silverman, 2004). Ko, Eun-Jeong and McKelvie (2018)는 235개의 인터넷 광고 벤처기업을 분석하여 벤처기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운드 펀딩에서 창업자의 교육수준이 투자자의 투자 여부와 투자 액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창업자의 교육수준은 신제품개발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Fig. 1. Research Model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H2c: 창업자의 교육수준은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5) 창업자 인적자본: 마케팅 역량

마케팅이란 기업가가 시장에 존재하는 고객들에게 유통을 제공하는 일련의 경영적 활동이다. 창업자는 마케팅을 통해 표적으로 삼은 고객들의 욕구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창업자는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여 충족시킴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Song, In-Ahm and Jeon, Gye-Sik, 2017). Vorhies and Morgan (2005)는 기업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마케팅 역량 8개 중에 첫번째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개발능력을 제시하며 마케팅 역량과 제품개발능력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Kim, Nam-Woon, Shin, So-Hyoun and Min, Sung-Wook (2016)는 마케팅 역량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 것 중 어느 전략을 사용할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209개의 한국 기업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경영자의 마케팅 역량이 더 나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신제품 경쟁우위를 만들어 낸다고 밝혔다. Ju, Jin and Zhou (2018)는 110개의 중국 국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마케팅 역량이 높을수록 경쟁자의 전략이나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전략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역량이 신제품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벤처기업에서는 창업자가 시작부터 벤처기업이 자원을 획득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량이 기업의 역량과 직결된다(Zhao, Song and Storm, 2013). 따라서, 창업자의 마케팅 역량이 높을수록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d: 창업자의 마케팅 역량은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Fig 1은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들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Table 1. Demographics of Research Sample**

Variable	Category	Frequency (N)	Percent (%)
Industry	Manufacturing	837	61.4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71	19.90
	Technology	133	9.77
	Others	121	8.87
Business life cycle	Launch	44	3.23
	Growth	303	22.25
	Shake-out	603	44.27
	Maturity	394	28.93
Founder gender	Decline	18	1.32
	Male	1,285	94.35
Founder age	Female	77	5.65
	20s	49	3.60
Founder education	30s	500	36.71
	40s	541	39.72
	50s	231	16.96
	> 60s	41	3.01
	High school	140	10.28
Target market	College	97	7.12
	Undergraduate	784	57.56
	Master	195	14.32
	Ph.D.	146	10.72
Total	Domestic	735	53.96
	Foreign	33	2.42
	Domestic and Foreign	594	43.61
Total		1362	100

### Ⅲ. 방법론

#### 1. 자료수집

연구모형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와 벤처기업협회가 2019년 공동으로 수행한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설문문을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문은 정부승인통계로 2018년 12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이며

30,000여 개의 신생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응답자는 대표이사, 임원 및 관리자(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종합한 결과 총 1,362개의 유효표본을 획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표본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들의 특징들이 기술되어 있다. 설문 대상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은 제조업이 837개(61.45%), 정보통신업이 271개(19.9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33개(9.77%), 그리고 기타가 121개(8.87%)로, 표본에는 제조업 기업이 과반수 이상 포진해 있었다. 또한, 기업들의 기업성장 단계 측면에서는 창업기가 44개(3.23%), 초기성장기가 303개(22.25%), 고도성장기가 603개(44.27%), 성숙기가 394개(28.93%), 그리고 쇠퇴기에 속해 있는 기업이 18개(1.32%)로, 고도성장기, 성숙기, 초기성장기, 창업기, 쇠퇴기 순으로 표본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성별을 보았을 때, 남성이 창업자인 기업이 1,285개로 94.35%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표본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이 창업자인 기업은 77개(5.65%)에 그쳤다. 창업 당시 창업자의 나이에 대한 분포는 60대 이상이 41명(3.01%)으로 가장 적었고, 창업을 30대와 40대에 한 창업자가 각각 500명(36.71%), 541명(39.72%)으로 가장 많았다. 창업자의 창업 당시 최종학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고졸 이하라고 응답한 답변이 140개(10.28%), 전문학사라고 한 답변이 97개(7.12%), 대졸이라고 응답한 답변이 784(57.56%), 석사 학위를 가졌다고 응답한 답변이 195개(14.32%),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한 답변이 146개(10.72%)였다. 대졸로 창업을 한 표본(57.56%)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학사로 창업을 한 표본(7.12%)이 가장 적었다. 창업당시 목표시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는 국내라고 답한 응답이 735(53.96%)개, 해외라고 답한 응답이 33(2.42%)개, 그리고 국내와 해외 모두 목표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94개로 주로 국내 시장을 포함해 해외시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변수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신제품개발역량이다. 신제품개발이란 제품 라인 계획, 전략 및 컨셉 개발, 사업 분석, 개발, 검증, 제조, 상용화 등으로 구성되는 긴 프로세스를 뜻한다(Durmuşoğlu, 2009). Subramaniam and Venkatraman (2001)는 경쟁자 대비 신제품개발에 대한 능력과 빈

도를 묻는 질문으로 신제품개발역량을 측정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설문대상기업이 경쟁사 대비 확보한 신제품개발역량을 묻는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문항으로 신제품개발역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제화이다. Kim, Eun-Hye and Kim, Jang-Hoon (2020)는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 비중으로 국제화를 측정했다. 이는 과거 선행 연구들에서 자주 사용된 방법이다(Autio, Sapienza and Almeida, 2000; Capar and Kotabe, 2003; Preece, Miles, Baetz, 1999). 본 연구도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설문대상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액으로 국제화를 측정하였다. 다음은 조절변수인 창업자의 인적자본이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인적자본을 4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여 측정했다. 첫 번째 요소는 창업자의 전문적 경험이다. Protogerou, Caloghirou and Vonortas (2017)와 Symeonidou and Nicolaou (2018) 등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창업당시 창업자의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설문하여 창업자의 전문적 경험을 측정하였다. 두번째 인적자본의 하위요소는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Delmar and Shane, 2006; Symeonidou and Nicolaou, 2018; Uy, Foo and Song, Zhaoli, 2013) 창업자가 과거 설립한 기업의 수를 통해 창업자의 창업경험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창업자의 교육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창업자의 창업 당시 최종학력으로 교육수준을 측정하였다(Avermaete et al., 2004; Marvel and Lumpkin, 2007). 마지막은 창업자의 마케팅 역량이다. 어떤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 그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경험을 쌓게 된다(Cooper, Gimeno-Gascon and Woo, 1994; Park, Sang-Moon and Lee, Mee-Soon, 2019; Shepherd and DeTienne, 2005). 이는 그 분야에 대한 역량의 개발로 이어지며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다. Jantunen et al. (2005)는 기업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역량을 과거 자원 재분배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Pitkänen, Parvinen and Töytäri (2014)는 창업자의 과거 마케팅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창업자의 마케팅 역량의 정

**Table 2.** Organiz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	References
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ies	A process consisting of product line planning, strategy and concept development, business analysis, development, validation, and manufacturing	Durmuşoğlu (2009)
Internationalization	Foreign sales to total sales	Kim, Eun-Hye and Kim, Jang-Hoon (2020)
Founder's professional experience	The founder's ability to solve emerging problems in the industry and seize new product opportunities	Kato, Okamuro, Honjo (2015), Rodenbach and Brettel (2012)
Founder's start-up experience	Founder's similar start-up experience to promote early internationalization	Cho, Ye-Hee and Choi, Soon-Gwon (2017)
Founder's education level	Founder's education level on problem-solving ability, managerial decision-making, and confidence necessary for business management	Chrisman, Bauerschmidt and Hofer (1998), Cooper, Gimeno-Gascon and Woo (1994)
Founder's marketing capability	Founder's competitive advantage by identifying and satisfying consumer needs	Song, In-Ahm and Jeon, Gye-Sik (2017)

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자의 과거 마케팅 업무 경험으로 마케팅 역량을 측정하였다.

#### 4. 분석모형

Tobit model estimation은 Tobin (1958)이 절단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 제시한 모델이다. 이 분석에서는 잠재변수 데이터의 상한선 혹은 하한선을 정해 한계점을 넘어선 값을 검열한다. 절단된 값들은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는 남지만, 이 수치들로 인해 도출되는 결과값은 모르는 값으로 처리된다. 연구자는 값들이 오직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석되는 데이터가 정규 오차곡선의 가정을 따른다면, Tobit regression은 절단된 값을 분석하기에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Tobit 분석법은 임의의 값을 절단된 수치와 연결시키거나, 분석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ad hoc 접근에서 발생하는 편향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Long, 1997). 또한, tobit 모

델은 최소제곱법에서는 사라지거나 왜곡될 데이터를 분석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유의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국제화 데이터는 절단되었을 때 정규분포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tobit 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하다.

#### IV. 분석결과

Table 2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평균적으로 국제 영업이익 비율은 8.61%였고, 신제품개발역량은 기업이 가진 신제품개발역량을 리커트 5점 척도로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보았을 때 평균 점수가 3.67이었다. 또한, 창업자의 전문적 경험은 9.4년이었고, 창업 경험을 가진 창업자가 1이고 없는 창업자가 0일 때 평균은 0.14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교육수준은 1이 박사, 2가 석사, 3이 대졸, 4가 전문학사, 5가 고졸 이하일 때 평균적으로 2.91의 수치를 보였으며, 창업자의 주요 역할이 마케팅일 때 1이고 아닐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Internationalization	1									
2. Firm size	0.16	1								
3. Profitability (ROA)	0.06	-0.01	1							
4. Leverage	0.01	-0.10	-0.56	1						
5. R&D intensity	0.01	-0.06	-0.10	0.00	1					
6. Founder's PE	0.07	-0.06	0.02	0.00	-0.04	1				
7. Founder's SE	0.06	0.02	-0.01	0.05	0.02	0.14	1			
8. Founder's EL	-0.06	-0.01	0.03	0.10	-0.11	0.03	0.11	1		
9. Founder's MC	0.04	-0.05	0.01	0.03	-0.03	0.08	0.06	0.17	1	
10. NPDC	0.16	-0.03	-0.06	0.02	0.06	0.09	0.02	0.06	0.03	1
Mean	8.61	3.28	-0.01	0.60	0.30	9.40	0.14	2.91	0.23	3.67
S.D.	19.4	1.19	0.49	0.46	2.11	7.97	0.35	1.03	0.42	0.74

Notes: NPDC=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PE=professional experience, SE=startup experience, EL=educational level, MC=marketing capacity

때 0으로 설정하였을 때 평균값은 0.2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다(Hair et al., 2019). 이 방법을 통해서 모델 내부의 공선성 문제가 있지 않은 지 확인할 수 있다. 변수들 간 VIF는 최소 1.04에서 최대 1.54로, 10의 한계치를 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3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Tobit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한 결과이다. Tobit regression은 종속변수의 관측치가 최대치 혹은 최소치 부근에 모여 있어 검열을 진행한 후 분석을 진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본 연구의 국제화를 대변하는 변수가 기업의 해외 영업이익 비율(FSTS, foreign sales to total sales)이기 때문에 0 이하, 100 이상 부분에서 검열(censoring)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Model의 관측치는 1,362개이며, Model 1부터 Model 7까지의 설명력은 각각 13%, 16%, 17%, 16.2%, 16.8%, 16.6%, 17.8%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업제와 기업 규모는 모든 모델에서 0.001 수준에서 유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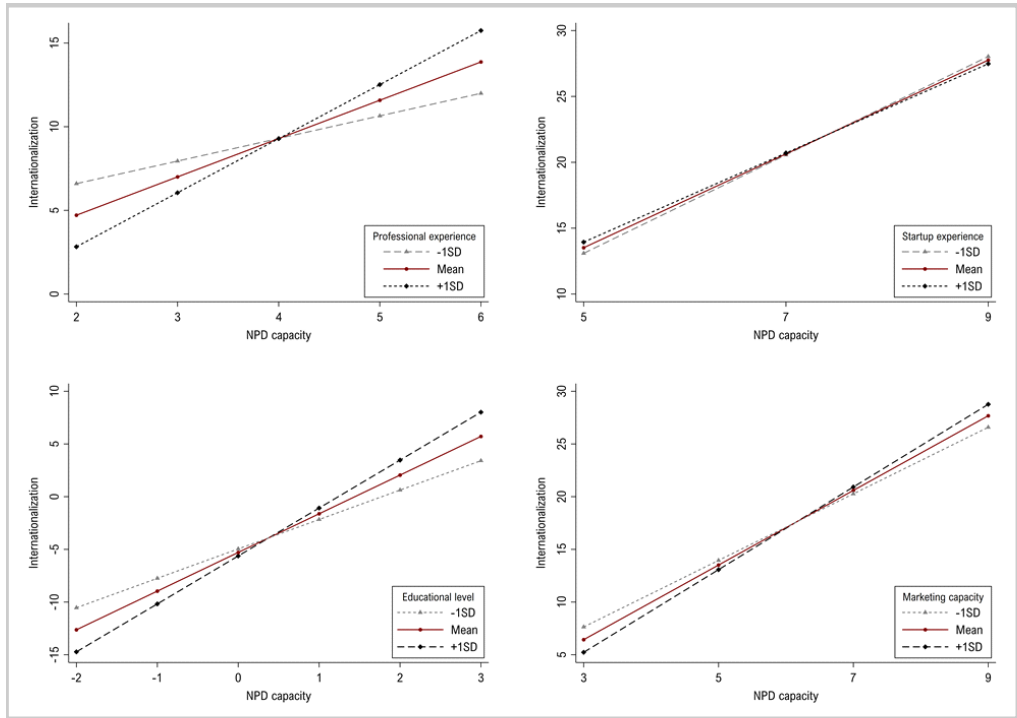
다고 나타났고, 수익성(ROA)은 Model 1, 3, 7에서 0.05 수준에서 유의하며 나머지 모델에서는 0.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자의 나이의 유의 정도는 모든 모델에서 0.01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혀졌다. Model 2를 보면, 독립변수인 신제품개발역량(NPDC)는 종속변수인 국제화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_{NPDC} = 3.679$ ,  $p < 0.001$ ). 따라서, H1은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odel 3, 5, 6을 고려하면 NPDC가 국제화에 주는 영향에 전문적 경험, 교육수준, 그리고 마케팅 역량이 주는 조절효과는 각각 0.001, 0.05,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_{Professional} = 0.269$ ,  $\beta_{Education} = 0.439$ ,  $\beta_{Marketing} = 0.764$ ). 하지만, Model 4의 창업자의 창업 경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2a, H2c, H2d는 지지되는 반면에, H2b는 지지되지 않았다. Model 7는 신제품개발역량을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 Tobit regression을 진행한 모형으로써 본 연구의 모든 가설들과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Figure 2에서는 NPDC에 대해 각 조절효과를 평균값에서 -1SD와 +1SD의 정도에 따라 그래프로써 표기하였다. 조절변수는 각 Figure의 우측하단에 나타나 있다.

**Table 4.** Tobit Regression result on venture's internationaliza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FY 2002	-3.764 (3.052)	-4.409 (3.020)	-4.472 (3.007)	-4.394 (3.021)	-4.320 (3.022)	-4.423 (3.020)	-4.393 (3.009)
FY 2003	-5.678* (3.250)	-5.302* (3.214)	-5.702* (3.202)	-5.288 (3.215)	-5.218 (3.216)	-5.228 (3.217)	-5.495* (3.204)
FY 2004	-3.561 (3.161)	-3.434 (3.125)	-3.662 (3.112)	-3.426 (3.126)	-3.341 (3.128)	-3.453 (3.125)	-3.615 (3.114)
FY 2005	-4.476 (3.517)	-4.426 (3.478)	-4.502 (3.463)	-4.406 (3.479)	-4.297 (3.482)	-4.409 (3.478)	-4.322 (3.467)
FY 2006	-4.765 (3.146)	-4.963 (3.111)	-4.864 (3.098)	-4.961 (3.111)	-4.828 (3.117)	-4.907 (3.113)	-4.655 (3.103)
FY 2007	-2.826 (3.081)	-3.315 (3.048)	-3.628 (3.036)	-3.311 (3.048)	-3.253 (3.048)	-3.379 (3.050)	-3.699 (3.039)
FY 2008	-8.497 (3.106)	-8.560 (3.071)	-8.764 (3.058)	-8.530 (3.075)	-8.404 (3.079)	-8.526 (3.079)	-8.512 (3.068)
FY 2009	-4.463 (3.057)	-4.203 (3.023)	-4.388 (3.011)	-4.190 (3.024)	-4.135 (3.025)	-4.224 (3.023)	-4.349 (3.012)
FY 2010	-4.307 (2.933)	-4.521 (2.901)	-4.922* (2.890)	-4.499 (2.903)	-4.508 (2.900)	-4.528 (2.900)	-4.888* (2.890)
FY 2011	-5.976 (2.956)	-6.238 (2.924)	-6.493 (2.912)	-6.227 (2.924)	-6.213 (2.924)	-6.292 (2.925)	-6.552 (2.913)
FY 2012	-5.569 (2.808)	-5.868 (2.777)	-5.760 (2.765)	-5.866 (2.777)	-5.803 (2.778)	-5.924 (2.779)	-5.795 (2.768)
FY 2013	-6.567 (2.903)	-6.921 (2.871)	-7.226 (2.860)	-6.904 (2.873)	-6.813 (2.875)	-6.900 (2.871)	-7.077 (2.864)
FY 2014	-3.016 (2.844)	-2.790 (2.813)	-2.674 (2.801)	-2.791 (2.813)	-2.705 (2.815)	-2.819 (2.813)	-2.652 (2.803)
FY 2015	-4.952 (3.085)	-4.964 (3.051)	-5.226* (3.039)	-4.971 (3.051)	-4.879 (3.053)	-4.989 (3.051)	-5.241* (3.041)
FY 2016	-7.226 (3.192)	-6.873 (3.157)	-7.016 (3.143)	-6.855 (3.158)	-6.800 (3.158)	-6.893 (3.157)	-6.951 (3.145)
FY 2017	-5.232 (3.543)	-5.456 (3.504)	-5.874* (3.491)	-5.451 (3.504)	-5.424 (3.504)	-5.539 (3.507)	-6.003* (3.494)
FY 2018	-2.216 (5.152)	-2.168 (5.094)	-2.085 (5.072)	-2.192 (5.096)	-2.110 (5.094)	-2.204 (5.094)	-2.165 (5.072)
Manufacturing	9.095 (1.087)	8.473 (1.081)	8.642 (1.077)	8.466 (1.082)	8.422 (1.083)	8.427 (1.084)	8.515 (1.081)
Firm size	3.086 (0.456)	3.111 (0.451)	3.120 (0.449)	3.110 (0.451)	3.117 (0.451)	3.105 (0.451)	3.111 (0.449)
Profitability (ROA)	-2.638 (1.204)	-2.239* (1.192)	-2.370 (1.188)	-2.248* (1.193)	-2.262* (1.193)	-2.225* (1.193)	-2.396 (1.189)
Leverage	-0.036 (1.307)	0.052 (1.292)	0.042 (1.286)	0.052 (1.292)	0.050 (1.292)	0.079 (1.293)	0.088 (1.287)
R&D intensity	0.059 (0.232)	-0.008 (0.230)	0.027 (0.229)	-0.008 (0.230)	-0.022 (0.231)	-0.010 (0.230)	0.012 (0.230)
Founder's age	1.842 (0.666)	1.857 (0.658)	1.879 (0.656)	1.855 (0.658)	1.878 (0.659)	1.864 (0.658)	1.903 (0.656)
PE	0.052 (0.072)	0.077 (0.071)	1.077 (0.297)	0.077 (0.072)	0.081 (0.072)	0.078 (0.071)	1.140 (0.302)
SE	1.311 (1.453)	1.300 (1.437)	1.424 (1.431)	2.599 (6.847)	1.303 (1.437)	1.333 (1.438)	5.098 (6.873)
EL	1.660 (0.505)	1.492 (0.500)	1.403 (0.499)	1.493 (0.500)	0.167 (2.464)	1.483 (0.500)	0.116 (2.507)
MC	1.624 (1.193)	1.913 (1.181)	1.912 (1.175)	1.921 (1.181)	1.923 (1.180)	4.696 (5.345)	6.731 (5.482)
NPDC		3.679 (0.664)	0.812 (1.060)	3.735 (0.724)	4.988 (2.016)	3.922 (0.806)	2.219 (1.159)
NPDC × PE			0.269 (0.078)				0.284 (0.079)
NPDC × SE				-0.350 (0.805)			-0.973 (0.811)
NPDC × EL					0.439 (0.639)		0.335 (0.652)
NPDC × MC						0.764 (0.430)	1.314 (0.470)
Constant	-2.85 (3.689)	-16.37*** (4.390)	-6.19 (5.268)	-16.54*** (4.509)	-21.42 (8.542)	-17.27*** (4.698)	-11.54 (8.959)
Pseudo R <sup>2</sup>	0.130	0.160	0.170	0.162	0.168	0.166	0.178
Log likelihood	-5862.4	-5847.3	-5841.3	-5847.2	-5847.0	-5847.1	-5840.5
LR(Chi2)	160.06	190.38	202.32	190.42	190.86	190.67	203.97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N	1362	1362	1362	1362	1362	1362	1362

Notes: FY=founding year, NPDC=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PE=professional experience, SE=startup experience, EL=educational level, MC=marketing capacity,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Fig. 1. Interaction between NPDC and Founder's Human Capitals



## V. 결론 및 시사점

### 1.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과거 선행연구들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요인으로 기술의 특허나 지식에 초점에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신제품개발역량을 주요 요인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과정에는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대응가능한 동태적 역량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해외 시장을 분석하여 새로운 기회를 탐색, 활용할 때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경영자의 동태적 역량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 동태적 역량이 높다면, 경쟁사보다 빠르게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신제품개발에 사

용할 수 있다(Schoemaker, Heaton and Teece, 2018; Warner and Wäger,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국제화 활동을 위해서 동태적 역량을 통한 지속적인 신제품개발 측면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신제품개발과정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인적자본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인적자본의 시선으로 경험, 교육수준 등이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De Cock, Andries and Clarysse, 2021; Ramón-Llorens, García-Meca and Duréndez, 2017; Suseno and Pinnington, 2018). 하지만 본 연구는 인적자본이 조절효과로써 신제품개발역량이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점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벤처기업은 창업자에게 큰 영향을 받고, 창업자가 기업의 발전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인적자본은 벤처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인적자본이 높으면 더 나은 정보처

리능력과 다른 문화에 대해 더 열린 사고를 가지거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에게 중요한 역량이 되어준다(Herrmann and Datta, 2005). 따라서, 창업자의 학력, 전문경험, 마케팅 역량 등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벤처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에 가미된다면 벤처기업의 국제화는 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화를 원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자신의 인적자본을 확대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떤 인적자본 요인들이 스타트업을 국제화로 이끄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적 경험은 같은 업계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Rodenbach and Brettel, 2012). 이러한 면모에서 전문적 경험은 신제품개발역량을 키워주기 때문에 창업자의 중요한 인적자본이 될 수 있다. 또한 창업자가 학력수준이 높다면, 학력에 따른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이 네트워크로부터 신기술이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Yavuz, 2021). 교육수준은 지식의 폭을 넓혀주어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Marvel, Wolfe and Kuratko, 2020). 즉, 학력수준이 높은 창업자는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을 것이다. 마케팅 역량은 창업자가 자사의 제품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특성을 포착하고 신제품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Joensuu-Salo et al., 2018). 따라서 벤처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입하고자 기회를 탐색할 때 마케팅 역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벤처기업의 창업자는 자신의 인적자본이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자신의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확대 및 이용함으로써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벤처투자자를 비롯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벤처기업 투자 여부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고려요인을 제시한다. 벤처기업에게 신제품개발역량과 창업자의 특성은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창업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시장에서 성공확률도 높다. 이러한 이론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온라인 회의 서비스 기업 줌(Zoom)이다. 줌의 창업자 에릭 유안은 온라인 회의 서비스 웹엑스의 창립멤버 중 하나로 줌 창업에 앞서 석사학위 취득 후 웹엑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그는 학업에서 얻은 지식과 웹엑스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서비스 줌을 출시했다. 줌은 출시 6년만에 유니콘으로 성장했으며,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의 영향으로 전세계가 사용하는 거대 글로벌 서비스가 되었다(CEO Magazine, 2021). 스타트업 투자를 결정하는 실무자들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신제품개발 역량과 스타트업 창업자의 특성을 향후 투자대상기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계점 및 미래연구 제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 협회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의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진 시장을 가진다는 한국의 문맥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국적 스타트업을 추가 조사하거나 더 많은 표본을 추가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을 대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신제품개발역량을 측정할 때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을 대변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제품개발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이 최근 3년 개발한 신제품의 개수와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다면 더욱 발전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대변하는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총 영업이익을 해외 영업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국제화 데이터로써 사용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을 조금 더 세분화 및 구체화하

여 기존 연구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기업이 진출한 국가를 구분하거나, 기업이 몇 개의 국제 시장에 진출해 있는지를 추가하거나(Angulo-Ruiz, Pergelova and Dana, 2020; Chen and Hsu, 2010), 진출한 국제시장이 선진국인지 개

발도상국인지, 혹은 진출한 시장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 의미 있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ldrich, H. E. (1990), "Us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to Study Organizational Founding Rat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7-24.
- Angulo-Ruiz, F., Pergelova, A. and Dana, L. P. (2020),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ocial Hybrid Firm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13, 266-278.
- Autio, E., Sapienza, H. J. and Almeida, J. G. (2000), "Effects of Age at Entry, Knowledge Intensity, and Imitability on International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5), 909-924.
- Avermaete, T., Viaene, J., Morgan, E. J., Pitts, E., Crawford, N. and Mahon, D. (2004), "Determinants of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in Small Food Manufacturing 1 The Content of the Paper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irst Three Authors. Firms 1",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15(10), 474-483.
- Barney, J.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arringer, B. R., Jones, F. F. and Neubaum, D. O. (2005),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Rapid-Growth Firms and Their Found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5), 663-687.
- Baum, J. A. C. and Silverman, B. S. (2004), "Picking Winners or Building Them? Alliance, Intellectual, and Human Capital as Selection Criteria in Venture Financing and Performance of Biotechnology Startup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3), 411-436.
- Brieger, S. A., Chowdhury, F., Hechavarría, D. M., Muralidharan, E., Pathak, S. and Lam, Y. T. (2022), "Digitalization, Institutions and New Venture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28(4), 100949.
- Cao, X. and Im, J. (2018), "Founder Human Capital and New Technology Venture R&D Search Intensity: The Moderating Role of an Environmental Jolt", *Small Business Economics*, 50(3), 625-642.
- Capar, N. and Kotabe,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Performance in Service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4(4), 345-355.
- Chang, S.-I. (2020),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Social Capital and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11(1), 215-230.
- Chen, H. and Hsu, C.-W. (2010), "Internationalization, Resource Allocation and Firm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9(7), 1103-1110.
- CEO Magazine (2021), Zooming towards the future: Eric Yuan, Available from <https://www.theceomagazine.com/executive-interviews/it-electronics/eric-yuan/>



- Cho, Y.-H. and Choi, S.-G.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 Founder Characteristics for each Distribution Channel Type of the Internet Shopping Mall Companie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Satisfac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7(1), 15-32.
- Cho, Y.-S. and Lee, T.-H. (2014), "The Exploratory Study of the Integrated Model between the Network-based View and Knowledge-based View on International New Ventures in Mature Industry",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4(2), 223-247.
- Choi, J.-A. (2012), "Dynamic Capability Building of Technology-Based Ventur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 the Case of Korean Game Companies in Japan",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5(1), 33-63.
- Chrisman, J. J., Bauerschmidt, A. and Hofer, C. W. (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1), 5-29.
- Chun, D.-P. (2018),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on Venture Business Managerial Performance: By Separating the Duration of Firm's Surviva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12.
- Chung, D.-H. (2019),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P Proportion of Startup and Financing Performance: Moderating Role of Founder's Education Leve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1-11.
- CNN (2021), Grab Plunges 21% in Biggest Wall Street Debut by a Southeast Asian company, Available from <https://edition.cnn.com/2021/12/02/investing/grab-ipo-spac-nasdaq-intl-hnk/index.html>
- Cohen, W. M. and Levinthal, D. A. (1989), "Innovation and Learning: The Two Faces of R & D", *Economic Journal*, 99(397), 569-596.
- Cooper, A. C. and Dunkelberg, W. C. (1986), "Entrepreneurship and Paths to Business Ownership",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1), 53-68.
- Cooper, A. C., Gimeno-Gascon, F. J. and Woo, C. Y. (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371-395.
- Cooper, R. G. and Kleinschmidt, E. J. (2007), "Winning Businesses in Product Development: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50(3), 52-66.
- De Cock, R., Andries, P. and Clarysse, B. (2021), "How Founder Characteristics Imprint Ventures' Internationalization Processes: The Role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Cognitive Beliefs", *Journal of World Business*, 56(3), 101163.
- Delmar, F. and Shane, S. (2006), "Does Experience Matter? The Effect of Founding Team Experience on the Survival and Sales of Newly Founded Ventures", *Strategic Organization*, 4(3), 215-247.
- Demirbag, M., McGuinness, M. and Altay, H. (2010), "Perception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Entry Mode: FDI from an Emerging Country",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0(2), 207-240.
- Dimov, D. P. and Shepherd, D. A. (2005), "Human Capital Theory and Venture Capital Firms: Exploring "Home Runs" and "Strike Ou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1-21.
- Durmuşoğlu, S. S. (2009), "The Role of Top Management Team's Information Technology (IT) Infrastructure View on New Product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12(3), 364-385.
- Fernandes, K. J., Milewski, S., Chaudhuri, A. and Xiong, Y. (2022), "Contextualising the Role of External Partnerships to Innovate the Core and Enabling Processes of an Organisation: A Resource and Knowledge-Based View",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44, 146-162.
- Forbes (2022), Tesla: A History of Innovation (and Headaches), Available from <https://www.forbes.com/sites/qai/2022/09/29/tesla-a-history-of-innovation-and-headaches/?sh=112765021873>

- Franco, S., Cappa, F. and Pinelli, M. (2021), "Founder Education and Start-Up Funds Raised",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49(3), 42-48.
- Grant, R. M. (1996),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S2), 109-12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 Anderson, R. E.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ition). Boston, MA, CENGAGE.
- Han, J.-W., Bae, T.-J. and Lee, B. H.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Born-Global Firms: Comparisons with Domestic New Venture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19(3), 73-99.
- Herrmann, P. and Datta, D. K. (2005), "Relationships between Top Management Team Characteristics and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6(1), 69-78.
- Hwang, D.-S. and Song, W.-Y. (2021), "Effects of Strategic Orientation and Network Capability on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and Firm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1), 412-437.
- Innobiz.Net (2022), Overall State of Innobiz, (Webpage). Available from [https://www.innobiz.net/company/company3\\_list.asp](https://www.innobiz.net/company/company3_list.asp)
- Jang, M.-G. and Lee, D.-H. (2018), "The Impact of Firm Resources on CEO International Attention in Small-medium Sized Firms",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1(3), 39-60.
- Jantunen, A., Puumalainen, K., Saarenketo, S. and Kyläheiko, K. (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ynamic Capabilit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3(3), 223-243.
- Jeong, S.-W. and Won, C.-H. (2015), "Impacts of Capabilities on Intern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Small Venture Firms : Moderating Effects of Market and Technology Turbul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97-105.
- Joensuu-Salo, S., Sorama, K., Viljamaa, A. and Varamäki, E. (2018). "Firm Performance among Internationalized SMEs: The Interplay of Market Orientation, Marketing Capability and Digital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s*, Vol. 8.
- Kang, J.-E. and Rhee, J.-H. (2010), "Ventures' Characteristics and Born-Global Propensity: Focusing on Korean Ventures' Founders, Technological Resources and Network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1(3), 21-46.
- Kang, S.-H., Kim, S.-Y. and Park, S.-M. (2020), "The Effect of Firm Competence and External Collaboration on Early Internationalization of Ventur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ounder's Experience in the Related Industry",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3(4), 137-160.
- Kato, M., Okamuro, H. and Honjo, Y. (2015), "Does Founders' Human Capital Matter for Innovation? Evidence from Japanese Start-up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1), 114-128.
- Kim, D.-E., Jung, J.-H. and Min, Y.-K. (2020), "Determinants of R&D Capability of Mid-Sized Domestic Export Companies: Firm Level, Market Level, Government Level",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24(4), 197-209.
- Kim, E.-H. and Kim, J.-H. (2020), "The Influence of Venture Firm's Internal Capabilities and External Resource Utilization on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The Expansion of Resource-Based View",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23(1), 1-23.

- Kim, K.-S., Park, W.-J. and Bae, B.-Y. (2020), "A Study of Influence of Banker's Big5 Personality Trai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ed Effect of Digital Media Utilization Capabil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209-220.
- Kim, K.-W. and Seo, B.-C. (2010), "Effect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3(4), 1911-1931.
- Kim, S.-H. (2013), "The Impact of Supply Chain Integr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24(4), 537-561.
- Kim, S.-J. and Kim, H.-J. (2018), "The Influence of Technology Orientation on New Product Performance of Bio Venture of SMEs", *Journal of Management & Economics*, 40(1), 165-189.
- Kiss, A. N. and Barr, P. S. (2017), "New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Implementation Duration and New Venture Performance: A Contingency-Based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43(4), 1185-1210.
- Ko, E.-J. and McKelvie, A. (2018), "Signaling for More Money: The Roles of Founders' Human Capital and Investor Prominence in Resource Acquisition Across Different Stages of Firm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3(4), 438-454.
- Laursen, K. and Salter, A. (2006), "Open for Innovation: The Role of Openness in Explaining Innovation Performance among U.K. Manufacturing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7(2), 131-150.
- Lee, K.-J. and Choi J.-I. (2012), "A Study on Leapfrogging Growth of Venture Companies: Analysis of 100 Million Dollar Company Cases in Daejeon, Korea", *Knowledge Management Review* 13(3), 17-36.
- Lee, R. (2020),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Collaboration and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in Small & Mid-sized Venture Compan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185-195.
- Lester, D. H. (1998),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New Product Development",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41(1), 36-43.
- Lilien, G. L. and Yoon, E. (1989), "Determinants of New Industrial Product Performance: A Strategic Re-examination of the Empirical Literature",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36(1), 3-10.
- Long, J.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1st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arvel, M. R. and Lumpkin, G. T. (2007), "Technology Entrepreneurs' Human Capital and Its Effects on Innovation Radicaln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6), 807-828.
- Marvel, M. R., Wolfe, M. T. and Kuratko, D. F. (2020), "Escaping the Knowledge Corridor: How Founder Human Capital and Founder Coachability Impacts Product Innovation in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5(6), 106060.
- Marvel, M. R., Wolfe, M. T. and Kuratko, D. F. (2020), "Escaping the Knowledge Corridor: How Founder Human Capital and Founder Coachability Impacts Product Innovation in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5(6), 106060.
- O'Reilly, C. A. and Tushman, M. L. (2008), "Ambidexterity as a Dynamic Capability: Resolving the Innovator's Dilemma",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8, 185-206.
- Okamuro, H., Kato, M. and Honjo, Y. (2011), "Determinants of R&D Cooperation in Japanese Start-Ups", *Research Policy*, 40(5), 728-738.

- Oliveira, M. G. and Rozenfeld, H. (2010), "Integrating Technology Roadmapping and Portfolio Management at the Front-End of New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77(8), 1339-1354.
- Park, J.-Y. and Shin, H.-H. (2020), "The Effect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on Corporate Innovation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1-15.
- Park, S.-M. and Lee, M.-s. (2019), "Success and Fail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New Venture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of Firm Ag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4), 51-62.
- Park Sarah, and LiPuma, J. A. (2020), "New venture internationalization: The Role of Venture Capital Types and Reputation", *Journal of World Business*, 55(1), 101025.
- Patzelt, H. (2010), "CEO Human Capital, Top Management Teams, and the Acquisition of Venture Capital in New Technology Centure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27(3), 131-147.
- Phillips McDougall, P., Shane, S. and Oviatt, B. M. (1994), "Explaining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The Limits of Theories From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6), 469-487.
- Pitkänen, I., Parvinen, P. and Töytäri, P. (2014), "The Significance of the New Venture's First Sale: The Impact of Founders' Capabilities and Proactive Sales Orientation",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1(4), 680-694.
- Preece, S. B., Miles, G. and Baetz, M. C. (1999),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Intensity and Hlobal Diversity of Early-Stage Technology-Bas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4(3), 259-281.
- Protogerou, A., Caloghirou, Y. and Vonortas, N. S. (2017), "Determinants of Young Firms' Innovative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Europe", *Research Policy*, 46(7), 1312-1326.
- Ramón-Llorens, M. C., García-Meca, E. and Duréndez, A. (2017), "Influence of CEO Characteristics in Family Firms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6(4), 786-799.
- Rhee, Y.-P. (2021),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Born Global Venture Firm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5(1), 47-60.
- Rodenbach, M. and Brettel, M. (2012), "CEO Experience as Micro-Level Origin of Dynamic Capabilities", *Management Decision*, 50(4), 611-634.
- Roh, T.-W., Park, B.-I. and Xiao, S. S. (2022), "Multiple Principal Conflict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s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Moderating Role of Founder's Experiences", *Journal of Innovation & Knowledge*, 7(4), 100274.
- Salomo, S., Weise, J. and Gemünden, H. G. (2007), "NPD Planning Activities and Innovation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Process Man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duct Innovativenes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4(4), 285-302.
- Schoemaker, P. J. H., Heaton, S. and Teece, D. (2018), "Innovation, Dynamic Capabilities, and Leadership",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61(1), 15-42.
- Shepherd, D. A. and DeTienne, D. R. (2005), "Prior Knowledge, Potential Financial Reward, and Opportunity Identifi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1), 91-112.
- Shin, C.-H., Lee, Y.-W. and Cho, H.-J. (2019), "Internationalization of Venture : Focus on Founder's Prior Organizational Experience and Business Cycle",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2(1), 187-206.
- Shin, S.-Y. and Kwon, G.-H. (2021), "A Study on Effects of 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 on Firm Performances: Focusing on Technology(ICT)-based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1), 185-205.
- Subramaniam, M. and Venkatraman, N. (2001), “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Testing the Influence of Transferring and Deploying Tacit Overseas Knowled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4), 359-378.
- Suseno, Y. and Pinnington, A. H. (2018), “Building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for Internationalization: The Role of Network Ties and Knowledge Resources”,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35(4), 1081-1106.
- Symeonidou, N. and Nicolaou, N. (2018), “Resource Orchestration in Start-Ups: Synchronizing Human Capital Investment, leveraging Strategy, and Founder Start-Up Experience”,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2(2), 194-218.
- Teece, D. J., Pisano, G. and Shuen, A.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509-533.
- Tobin, J. (1958),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26(1), 24-36.
- Tushman, M. L. and Anderson, P. 2018. Technological Discontinuitie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s, *Organizational Innovation*: Routledge, London, 345-372.
- Uy, M. A., Foo, M.-D. and Song, Z. (2013), “Joint Effects of Prior Start-Up Experience and Coping Strategies o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5), 583-597.
- Veugelers, R. and Cassiman, B. (1999), “Make and Buy in Innovation Strategies: Evidence from Belgian Manufacturing Firms”, *Research Policy*, 28(1), 63-80.
- Warner, K. S. R. and Wäger, M. (2019), “Building Dynamic Capabiliti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An Ongoing Process of Strategic Renewal”, *Long Range Planning*, 52(3), 326-349.
- Woo, H-J (2020), “Foreign Venture Capital Firm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Ventures”,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28(3), 381-399.
- Woo, H.-R. and Kwon, J.-E. (2013),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Absorptive Capacity on SME's NPD”,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1(2), 57-84.
- Wyrwich, M., Steinberg, P. J., Noseleit, F. and de Faria, P. (2022), “Is Open Innovation Imprinted on New Ventures? The Cooperation-Inhibiting Legacy of Authoritarian Regimes”, *Research Policy*, 51(1), 104409.
- Yavuz, R. I. (2021), “Founders’ Education, Social Capital, and Their Interplay in the Intensity of New-Venture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37.
- Yeo, J.-E., Yu, J.-I. and Kang, S.-H. (2021), “Effects of Firm Competence and External Cooperation on the Early Internationalization of Ventur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quity Ownership and Experience of the Founder”,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1), 131-160.
- Yoon, H.-J. (2018),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 of Product Novelty of Business Ventur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23-34.
- Yoon, J.-H. and Seo, M.-K. (2015), “An Empirical Study on the Role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echnology Orientation, and Market Orientation in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Based on International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0(1), 231-255.
- Yu, X., Li, Y., Su, Z., Tao, Y., Nguyen, B. and Xia, F. (2020), “Entrepreneurial Bricolage and Its Effects on New Venture Growth and Sdaptiveness in an Emerging Economy”,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37(4), 1141-1163.